

건축문화의 진흥과 말살의 기로에서

- 이해찬 총리께 드리는 글

Facing the Crossroad between Advancement and Oblitera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10월 18일, 안양의 국토연구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건축사들로 강당의 좌석은 물론 로비와 복도, 무대가장자리까지 사람들로 넘쳐흘렀다. 건축사들은 '후배들이 미안하다 건축문화 이제 없다', '특정업체 돈벌이에 총리까지 앞장서나', '재벌회사 설계검업이 건축문화 선진화정책인가' 등 수많은 구호가 쓰여진 플래카드와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쳤고, 공청회 직전에는 건축사 신위(建築士 神位)를 앞세우고 굴건제복의 상주들이 곡을 하며 입장하자 이에 합세하는 통곡소리와 격려의 박수가 장내를 진동하였다.

국민민복을 위하여 정무에 바쁘신 이해찬 총리님.

위의 글은 총리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를 위한 공청화장을 가감없이 스케치한 것입니다.

건축사 응시 자격은 건축을 전공하고 5년 이상 건축설계 경력을 가져야 가능한 것으로 변호사나 의사보다도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이는 변호사 업무가 생명과 직접관계가 없음이고, 의사는 개체의 생명을 다루는데 비해 건축사에게는 수십, 수백명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삼풍사고는 그러한 실례입니다. 이는 건축을 부동산가치로만 보는 사회인식, 김치파동처럼 무조건 싸게만을 외치는 열악한 수주 환경,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경비절감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에 앞서 변명의 여지없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이 우리의 손을 거침으로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또한 큼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공과를 논하려함은 아닙니다. 그만큼 프라이드와 엘리트의식을 갖고 있는 건축사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간 많은 것을 참아 왔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소위 개혁이란 미명하에 개업한 건축사와 같은 숫자의 건축사를 3년 간에 걸쳐 실력과 관계없이 무리하게 배출함으로써 보조원의 부족현상, 덤핑의 가속화, 건축사 질의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이 소용돌이쳤을 때나 건축사협회의 회원가입을 안 해도 개업할 수 있게 함으로서 불법건축 행위의 성행과 통제 및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의 징계권 박탈, 소비자를 위한 것인데도 담합으로 간주하는 설계비 요율, 엔지니어링 보다 높은 세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 문제를 다루는 현장조사검사업무에 대한 보수와 처벌문제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주장을 펼쳤을 뿐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울분으로 가슴앓이를 할지언정 머리띠를 메고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럴까요?

위에 열거한 것들은 분명 부당한 것들이지만 건축사 본연의 작품에 대한 창조성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설계검업은 바로

설계검업은 창조성의 훼손과 건축사의 존립의의를 없애
건축사 뿐만아니라 중소건설업체의 자립기반도 무너져
스페인도 건물하나로 피폐된 도시전체가 다시 활기를 찾아
단순 논리의 경제적 접근보다는 건축문화 파급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익성 검토해야
대통령의 건축문화 진흥책과 규제위의 설계검업 주장은 상극

창조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대한민국의 건축문화가 말살되는 단초를 만드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건축사 존립의 원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통보 받음으로 시작부터 요식적인 통과례임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내놓은 공청회 자료 표지에는 '본 자료는 ...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 토론을 위해 작성된 시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문가인 건축사나 주무부처 관계팀의 의견은 반영된 것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사측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를 보아도 경제학교수는 있고 건축학교수는 없는 외쪽다리였으며, 소비자관점에서 나온 토론자도 대표성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검업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을 토론해야할 시점에 5개 분야를 1시간에 다룬다는 시간표에서 요식행위라는 것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총리께서는 지난 9월 15일 조찬 모임에서 검업을 해서라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토론회 내용과 똑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춰짐으로써 건축사들을 흥분하게 하였습니다.

건축설계가 건설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10년 전부터 수없이 반복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총리께 드리는 글이니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공과대학에 속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은 모두 기술사제도가 있습니다. 타 분야에서 기술사는 설계와 시공을 모두 겸하고 있으나 건축분야만 유독 설계는 건축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사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창작예술을 하는 건축사가 건축사 아닌 경영자에게 예측되어서는 안 되며,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목설계의 경우 건설회사 주장처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만으로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설계검업이 가능한데 건축설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형건설사는 사실상 계열사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규제실효성이 저하됨'으로 검업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한회사가 되어야할 이유가 공색합니다.(사실은 위장계열사 등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회사는 일종의 관리업입니다. 모든 것은 단종회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술, 공법도 그들의 것이 많고 법령 있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노우하우이기에 공개를 꺼립니다. 일례로, 최근에 개관한 유명미술관의 설계를 외국건축사에게 의뢰했는 바 검정색콘크리트로 외관을 만들라는 시방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검정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수개월 동안 별 시험을 다 하여 만들어 냈습니다. 그 작가가 일본에 설계한 작품에도 이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검정 페인트를 칠했다더군요. 이런 전무한 시방을 내는 것이 건축사이고 이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건설회사의 몫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가 없는데 왜 한국은 규제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제한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건축사를 고

위정자들은 역사를 바른길로 인도할 절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시대 건축문화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는 건축사들과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총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는 당사자로서 그른 것을 방임하는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고,

후자는 역사 앞에 건축문화 말살자로서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는 총정 때문입니다.

용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불법행태의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밑에서 운위되고 있는 해외턴키공사의 경쟁력 불리도 아파트 대형단지 설계 등 설계이의 실현을 위한 걸치례용이며, 이로 인해 허용한다면 이아말로 반대잡기 위해 추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검증이 허용되어도 이를 갖출 회사는 몇몇 대형사뿐으로 나머지 건설사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도산할 것입니다. 아니면 대형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텐데 이 경우, 과당경쟁은 또 다른 도산을 초래하여 결국 몇 개의 대형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업의 붕괴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검증은 단순히 건축사와 대형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일 방문 이후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건교부 소속 기획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건축문화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하여 20여개 주제별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총의를 집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시상한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들과 함께 스페인 건축문화 답사를 했습니다. 가우디의 도시라는 바르셀로나의 성가족성당은 반도 짓지 않았는데 관람료가 1인당 8유로로 향후 건축비의 재원이 되고 있으며, 6,000만불의 건축비로 1,000억 달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합니다. 수도국에서 국장의 결단으로 최근 준공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수도국청사(AGBA BLDG), 소위 여송연 건물은 엄청난 건축비가 들었으나 향후 관광효과를 계산하면 경제적으로도 남는 장사라 하였습니다. 스페인의 폐허화된 도시 빌바오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겐하임미술관을 건립, 관광객 1일 2,000명을 목표로 했는 바 그 10배가 들어와 도시를 재건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 바로 건축문화혁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계검증은 규제개혁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도 당장보다 장래를 내다본다면 창조성을 보장하는 현행체제가 더 완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에서 거론되는 설계검증은 건축문화 혁신정책에서는 상극이며 독약입니다. 총리께서는 바르셀로나 시장이 수도국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후원한 것처럼 건축사들의 창작환경을 보호해주고 정부부터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게는 대통령의 올바른 뜻을 펼치는 총리로서의 의무이지만 크게는 건축문화의 진흥이나, 말살이나 하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시대의 역사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역사를 바른길로 인도할 절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시대 건축문화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는 건축사들과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총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는 당사자로서 그른 것을 방임하는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고, 후자는 역사 앞에 건축문화 말살자로서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는 총정 때문입니다. ■